

집안 가득 흙탕물 범벅 전쟁터 방불...“이런 날벼락 처음”

르 포 - 태풍 '미탁'에 최악의 물난리 겪은 완도

밤새 물 퍼내느라 기진맥진...철물점 주인은 젖은 제품 보여 허탈 58동 침수피해...주민들 “지자체가 사전대비 철저히 했어야” 분통

“오늘은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모르겠네.”

3일 오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김진원(74)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맞았다. 김씨는 전날 밤 제18호 태풍 '미탁'이 몰고 온 폭우로 집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폭우가 몰고 온 물이 집안으로 들어닥쳐 무릎까지 찬 뒤, 태풍이 물러간 아침에야야 빠져나왔다. 집안은 전쟁터였다. 누전 위험을 생각해 모든 전기는 이미 끊은 상태였고, 냉방각의 음식들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김씨가 아무리 대걸레로 닦아내도 장판은 밟을 때마다 물이 올라와 온통 흙탕물 투성이었다. 안방의 벽지에는 무릎 높이까지 찻던 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김씨는 대민지원을 나온 장병 20명과 함께 소파·냉장고·식탁·침대 등을 헹궈 씻어내며 한숨만 내쉬었다.

그는 “평생을 완도에서 살았지만 이런 물

난리는 처음 봤다”면서 “아제 화장실이란 모 든 배수구에서 물이 차올라 방안으로 들어왔 다고 간밤의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물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지만 손 도 못대고 대책 없이 있었는데, 간조 때가 되니 겨우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며 “밤새 물을 퍼냈지만 소용이 없어 포기하고 새벽 녘에 잠깐 눈만 붙였다. 당장 오늘 밤이 걱 정이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완도읍내에서 12년 동안 철물점을 해 온 박이수(63)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박씨는 빗물에 잠긴 낫과 칼 등 철물점 물건들을 꺼내 하나하나 닦아내며 울상을 지었다. 그는 “최대한 물건들을 닦아 보려 했지만 쇠로 된 제품은 물이 묻으면 녹이 슬어 팔 수가 없다”며 “특히 바닥에 둔 못이 나 칼은 그냥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이 차 오를 큰길에 차들이 지 나다니니까, 너울이 생겨 물이 자꾸 가게 로 들어왔다”면서 “물이 차는 속도가 빨라

상품을 밖으로 빼낼 시간도 없었다”고 푸 념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 까지 완도지역에는 평균 186.2mm의 비가 내렸다. 완도 청산도에는 2일 오전 9시 10 분께부터 1시간 동안 82mm가 내리는 등 많 은 양의 비가 쏟아졌다.

이 비로 인해 주택 58동(완도읍 38·금일 6·노화6·청산3·소안3·고급1·생일1)이 침 수됐고, 도로 5곳이 유실됐다.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완도는 침수 피 해가 없어 축복받은 곳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번 아니다”며 “태풍이 오면 지자체가 사전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니 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가게에서 비에 젖은 상품을 꺼내고 있던 상가 주민들 “침수 피해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군청이 대책 마련을 서둘러 달라” 고 촉구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침수 피해는 대 조기(보름달 무렵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 만조 시간대에 배수구의 배수 능력을 초과 하는 폭우가 내려 바다로 빠져야 할 물이 역류한 것 같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 사해 복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완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18호 태풍 미탁이 지나간 3일 오전 침수 피해를 입은 완도군 완도읍 한 주택에서 장보고부대 장병들이 청소와 집 정리를 하고 있다. /완도=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기상청 “가을 태풍 또 한반도 덮칠 수도”

올가을 제18호 태풍 '미탁'에 이어 또다 시 태풍이 한반도를 덮칠 수 있다는 전망 이 제기됐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가을 태풍이 추가 로 발생할 것은 분명하며, 한반도로 북상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북서 태평양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 아 태풍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이다. 북태

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확장해 있어 태풍 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한반도로 북상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평년(1981~2010년) 10월에는 3.6개의 태풍이 발생해 우리나라에 각-간접 영향을 미친 것은 0.1개 정도였다. '미탁'은 2~3 일에 걸쳐 남부지방을 관통했지만, 9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9월 태풍으로 분류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수치모델 상으로 는 며칠 이내에 태평양에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아직 조짐이 뚜렷하지는 않다”며 “통계를 살펴 보면 올가을 우리나라가 추가로 태풍 영향 을 받을 확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려다고 배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은 '미탁'을 포함해 모두 7개로, 기상 관측 이래 1959년과 함께 가장 많다.

/정병호 기자 jusbh@연협뉴스

지난해 전기화재 광주·전남 663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633건의 전기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에서도 2014년 이후 139건의 화재로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전기화재는 광주 185건, 전남 478건으로 조사됐다.

전기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광주 3명(사망1명·부상2명), 전남 7명(부상)이 었으며, 재산피해는 광주 9억 3423만 원, 전남 110억 751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전기화재는 2016년 7563 건, 2017년 9011건, 2018년 924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산피해는 같 은 기간 627억 3100만 원, 2104억 6200 만 원, 1129억 9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 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숙박업소 화재는 광주 52 건, 전남 87건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소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광주 5명(부상), 전남 20명(사망8명·부상12명)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피의사실 공표죄 ‘유명무실’ 10년간 317건 접수 불구 기소는 ‘0’

2010년 이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이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며 고소·고발된 사건이 총 317건에 달했지만, 재판에 넘 겨진 사건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 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 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대검찰청에서 받 은 사건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317건 피의사 실공표 사건 중 210건이 불기소로 처리 되고,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한 건도 없었 다. 나머지는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지된

상태다.

현행 형법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재 판에 넘기기 전에 유출한 경우 3년 이하 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하지만 고소·고발은 300건 넘게 접수 됐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 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연이은 태풍에 흑산 홍어 조업 부진...가격 50만원대로

올 가을 잦은 태풍으로 출어 일수가 줄 어들면서 어획량이 감소한 흑산 홍어의 값 이 50만원대로 올랐다.

3일 신안수협 등에 따르면 지난해 풍어 로 20만 원대까지 하락했던 홍어 한 마리 가격이 최근 50만 원 초반까지 오른 것으 로 나타났다.

평소 이 시기에 한 적당 이틀 조업으로 100~200마리를 잡았지만 올해는 20~30마 리에 그치고 있다. 설명 어획량이 많더라도 최상품의 홍어는 몇 마리 되지 않는 것 으로 전해졌다.

조업 부진 등으로 최상품인 8kg 이상 암 컷 소비자 가격은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25 만 원선이었으나 최근엔 50만 원대 초반으

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 원 이상 올 랐다.

수협 관계자는 “본격적인 홍어 조업 시 기를 맞아 세 번의 태풍이 올라오는 등 기 상 여건이 좋지 않아 조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태풍 등으로 바다 생태계가 변 화됐는지 홍어도 잡히지 않아 현재는 출어 비도 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홍어잡이 어민은 “기상 여건이 좋아 지고 홍어도 많이 잡히면 가격이 많이 내 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여기가 끝난 7월부터 지금까지 홍어 위판량은 4000여 t으로 작년 같은 기간 (6600t)에 못 미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llsee@kwangju.co.kr

여수서 아파트 화재...80대 숨져

3일 새벽 1시 50분께 여수시 오림동 아 파트 1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집 내부 55㎡를 태우고 출동한 119 에 의해 30분 만에 진화됐으며, 집 배란다 에서는 A(8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불로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진화 과정에서 소방 관 1명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은방에서 홀로 잠을 자던 A씨 가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해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또 작은방에서 불길을 발견했다는 A씨 가 건축 실수를 토대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보고 조사 중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주 동구청, 쿠팡축제 26일 개최 앞두고 집단 반대 민원 골머리

○...광주쿠팡문화축 제 추진위원회가 오는 26일 제2회 행사 개최를 위해 광주 동구청으로부터 금남로 일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서 쿠팡축제에 반대하는 측의 집단 민원 이 쏟아져 구청이 골머리.

○...3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구청 홈페이지 ‘두드림’에 게재 된 쿠팡축제 반대 글이 60여 건에 달하

고, 입택 동구청장 휴대전화로도 항의성 전화가 수십 차례 이어지고 있다는 것.

○...동구는 급기야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같은 내용 의 민원 제기는 자체해달라고 호소했는 데, 동구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 이 쏟아져 구청이 골머리. 때문에 동구가 쿠팡축제 개최 여부를 결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투자가치 좋은 경매물건 추천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계(061-270-6691) / 매각기일 : 2019.10.14(월) (10:00)

물건종별	일야	감정가	최저가	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토지면적	19835㎡ (6000.088평)	1,712,816,000원	(70%) 1,198,971,000원	1차	2019-09-02	1,712,816,000원	유찰
건물면적			(10%) 119,900,000원	2차	2019-10-14	1,198,971,000원	유찰
매각물건	토지 매각	소유자	유한회사리치산업				
개시결정	2018-11-19	채무자	유한회사리치산업 외 3명				
사건명	임의경매	채권자	김현성외1				
관련사건	2019타경3593(중복), 2019타경3609(중복), 2019타경3616(중복)						

목적지	지번	용도/구조/면적/토지이용계획	㎡당 단가 (공시지가)	감정가	비고	
토지	1	월암리 62-12	준보전산지, 하수처리구역,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	일야 7376㎡ (2231.24평) 109,000원 (12,600원)	803,984,000원	·현황 '목전'
	2	월암리 62-15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일야 2189㎡ (662.173평) 68,000원 (10,700원)	148,852,000원	·현황 '목전'
	3	월암리 62-16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일야 10270㎡ (3106.675평) 74,000원 (7,640원)	759,980,000원	·현황 '목전'
합계		면적소계 19835㎡ (6000.088평)		소계 1,712,816,000원		
감정가		토지:19835㎡ (6000.088평)		합계 1,712,816,000원	토지 매각	

